#### Session 6 Praying in the Spirit (1 Cor. 14) 영으로 기도함 (고전 14 장)

### I. INTRODUCTION 도입

A. For about five years in my early ministry I taught against speaking in tongues. But I was perplexed by one verse related to this subject—Paul claimed that he spoke in tongues more than all the other believers who lived in Corinth (1 Cor. 14:18). Why did he value this gift so much that he engaged in it more than anyone? He was a busy man, so why did he invest so much time speaking in tongues?

나는 사역의 초창기에 방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가르쳤다. 그러나 나는 이 주제에 대한 말씀 한 구절로 인해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바울은 고린도의 다른 모든 성도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했다고 말했다 (고전 14:18). 그는 왜 다른 어떤 이들보다 더 이것에 집중하며 이 은사를 귀중하게 여겼을까? 그는 바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방언을 하는 것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가?

B. If Paul valued praying in tongues as much as he seemed to, then I had to rethink my position. This verse gives us a glimpse into Paul's personal prayer life and his view on the gift of tongues.

만일 바울이 자신의 말처럼 방언 기도를 소중하게 여겼다면, 나는 내 입장을 다시 고려해봐야 했다. 이 구절은 바울의 개인 기도 생활과 방언의 은사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 II. TWO DIFFERENT TYPES OF THE GIFT OF TONGUES 방언의 은사의 두 가지 <del>종</del>류

A. Paul described two different types of the gift of tongues—two expressions with two different purposes. This helps us to better understand two statements that seem to contradict each other, that "not all" have the gift of tongues (1 Cor. 12:30), yet "all" can receive it (1 Cor. 14:5; Mk. 16:17).

바울은 두 가지 방언의 은사를 설명했고, 이 두 가지는 형태가 다르고 목적도 달랐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로 모순이 되는 듯한 두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즉, "모든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지는 않았다" (고전 12:30)라는 부분과, "모든 이들"이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다 (고전 14:5; 막 16:17).

<sup>7</sup>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is given to each <u>for the profit of all</u>: <sup>8</sup>for to one is given the word of wisdom... <sup>10</sup>to another different kinds of tongues, to another the interpretation of tongues... <sup>30</sup><u>Do all speak</u> with tongues? (1 Cor. 12:7-10, 30)

 $^7$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KJV 흠정역: 모두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  $^{10}$  ...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  $^{30}$  ...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고전 12:7-10, 30)

<sup>2</sup>For he who speaks in a tongue <u>does not speak to men but to God</u>, for no one understands him... <sup>4</sup>He who speaks in a tongue <u>edifies himself</u>... <sup>5</sup>I wish you <u>all spoke with tongues</u>... (1 Cor. 14:2-5)

<sup>&</sup>lt;sup>18</sup>I thank my God I speak with tongues more than you all... (1 Cor. 14:18)

<sup>&</sup>lt;sup>18</sup> 내가 <u>너희 모든 사람보다</u>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전 **14:18**)

- $^2$  방언을 말하는 자는 <u>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u>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  $^4$  방언을 말하는 자는 <u>자기의 덕을 세우고</u> ...  $^5$  <u>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u> ... (고전 **14:2-5**)
- B. In 1 Corinthians 12:30, Paul asked a rhetorical question, signifying that not every believer has the gift of tongues to profit the corporate body: "Do all speak with tongues?"
  - 바울은 고린도전서 12:30 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님에 대해 수사학적인 질문을 한다: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 C. In 1 Corinthians 12, the gift of tongues that Paul referred to was "for the profit of all," yet he wrote in 1 Corinthians 14 about tongues that bring personal edification to the one speaking in tongues.
  - 고린도전서 12 장에서 바울이 말한 방언의 은사는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전서 14 장에서 방언을 하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방언의 은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 D.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gift of tongues given to a few for the profit of the corporate body (1 Cor. 12:7) when the speaker speaks to men, and the gift of tongues given to all as a devotional prayer language for the profit of the individual who speaks privately to God (1 Cor. 14:2, 4).
  - 방언의 은사 중, 방언하는 자가 **사람에게 말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 **소수**에게 주어진 방언의 은사 (고전 12:7)와, 방언하는 자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말하며, 각 개인의 유익**을 위해 개인의 기도 언어로써 **모두**에게 주어진 방언의 은사 (고전 14:2, 4)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 E. Paul indicated that all can have the gift of tongues for their personal lives (1 Cor. 14:5, 39). Jesus said that speaking in tongues was one of the signs that would follow those who believe (Mk. 16:17).
  - 바울은 모든 이들이 개인의 삶을 위해 방언의 은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말했다 (고전 14:5, 39). 예수님께서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의 하나임을 말씀하셨다 (막 16:17).
  - <sup>5</sup>I wish you all spoke with tongues...<sup>39</sup> and do not forbid to speak with tongues. (1 Cor. 14:5, 39)
  - $^5$  나는 너희가 <u>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u> ...  $^{39}$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u>방언 말하기를</u> <u>금하지 말라</u> (고전 14:5,39)
  - <sup>17</sup>These signs will follow those who believe...they will <u>speak with new tongues</u>; (Mk. 16:17)
  -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underline{M}$  방언을 말하며 (막  $\mathbf{16:17}$ )
- F. When Paul wrote of "speaking in tongues more than anyone" (1 Cor. 14:18), he referred to using his personal prayer language, not to giving an utterance in tongues in a public church service. Thus, in my early ministry I taught against tongues based on one aspect of Paul's teaching—that all do not have the gift of tongues to speak out in a public worship service (1 Cor. 12:30).

바울이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에 대해 썼을 때 (고전 14:18), 그는 개인의 기도 언어를 언급한 것이지 교회 예배에서 방언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내가 사역 초기에 방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가르친 것은, 대중 예배에서 발언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모든 이들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고전 12:30)는 바울의 가르침의 한 측면에 근거한 것이었다.

## III. THREE BENEFITS OF SPEAKING IN TONGUES 방언의 세 가지 유익

A. Paul identified three specific benefits of speaking in tongues: speaking mysteries (v. 2); edifying oneself (v. 4); and blessing and giving thanks to God (v. 17).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것의 세 가지 유익을 말했다: 비밀을 말함 (2 절), 자신의 덕을 세움 (4 절),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 (17 절).

B. *Speaking mysteries*: When we speak in tongues in a devotional way, we commune with the Spirit who gives information that helps us to understand God's will and heart for us. Speaking mysteries is not about receiving "special truths" that are available to only a few. Paul was not referring to secret, elite information some might gain about spiritual things as the Gnostics claimed to have.

비밀을 말함: 우리가 개인 기도 가운데 방언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교제하게 된다.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소수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진리들"을 받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특별한 일들에 대한 비밀스럽고 엘리트적인 정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sup>2</sup>For he who speaks in a tongue does not speak to men but <u>to God</u>, for no one understands him; however, in the spirit <u>he speaks mysteries</u>. (1 Cor. 14:2)

 $^2$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u>하나님께 하나니</u>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u>비밀을</u> 말함이라 (고전 14:2)

- 1. As our spirit communes with the Spirit, we may receive faint and subtle impressions from the Lord in the way that words of knowledge come to us. These impressions may give us insight into how God wants to touch us or someone else through our prayers. They may be insights about our callings, lives, or areas of brokenness and pain where our hearts need healing.
  -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교제해 나감에 따라, 우리는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의 희미하고 세미한 영감 또는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이 영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또는 다른 이들을 어떻게 만지기를 원하시는 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는 우리의 부르심과 삶에 대한 통찰력일 수도 있고, 상처나 고통처럼 우리의 마음에 치유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
- 2. We may receive a mental picture of someone or see their pain or discouragement or a need they have. We may receive direction about how to pray for or serve God's plans for other people, cities, and nations. Or the Spirit may show us something in our lives, such as the need to humble ourselves to someone or reach out in relationship. Often the mysteries that the Spirit highlights are practical issues in which He wants to minister to us or through us.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림을 마음 속에 받을 수도 있고, 그들에게 있는 고통이나 절망, 그들의 필요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나 도시, 나라들을 향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어떻게 섬겨나갈 지의 방향을 인도받게 된다. 또는 우리가 삶에서 누군가에게 겸손하게 대해야 할 필요를 성령님께서는 보여주시거나, 관계에서 먼저 손을 내밀 필요를 보여주실 수도 있다. 종종 성령님께서 조명해주시는 비밀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거나,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실질적인 부분인 경우가 많다.

3. Before ministering to a group, I seek to pray in the Spirit to position myself to receive impressions, mental pictures, phrases, and direction from the Spirit to guide and help me. It is good to pray for the interpretation of what you are praying for (1 Cor. 14:13). As you do, the Holy Spirit may give you insight into what is on His heart for a particular situation.

나는 어떤 그룹을 향해 사역을 하러 가기 전에, 성령 안에 기도하며 성령께서 마음 속의 그림이나 구절, 방향을 주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한다. 당신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고전 14:13). 당신이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는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 당신에게 그분의 마음에 있는 통찰력을 주실 수도 있다.

<sup>13</sup> "Therefore let him who speaks in a tongue <u>pray that he may interpret</u>..." (1 Cor. 14:13)

13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고전 14:13)

4. Paul spoke of the Spirit as searching the depths of God to reveal them to us. He is our glorious escort into the deep things of God's heart, Word, and will (1 Cor. 2:10-12). The Spirit possesses full knowledge of the Father and Son—one preacher spoke of Him as the ultimate "search engine" of God's heart. He gives us a portion of what He searches out as we engage more with Him by speaking to Him with our minds and by praying with our spirit.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피시며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대해 말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뜻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영광스런 인도자이시다 (고전 2:10-12).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어떤 설교자는 그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궁극적인 "검색 엔진"이라고도 말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마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그분과 더욱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이 살피신 바를 우리에게 주신다.

<sup>10</sup>For the Spirit <u>searches all things</u>, yes, the <u>deep things of God</u>...<sup>12</sup>We have received...the Spirit... that <u>we might know the things</u> that have been freely given to us by God. (1 Cor. 2:10-12)

-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u>모든 것</u> 곧 <u>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u> 통달하시느니라 (KJV 흠정역: 살피시느니라) ... <sup>12</sup> 우리가 ...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2:10-12)
- C. *Edifying oneself*: Edifying oneself means to be strengthened or built up. Paul was encouraging them to "charge their spiritual batteries." Praying in the Spirit results in our hearts becoming more sensitive to the things of the Spirit (Jude 20). We may not feel anything when we pray in the Spirit, but we should not seek to measure what is happening by what we feel in that moment.

자기의 덕을 세움: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강건하며 든든해짐을 의미한다.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성령님의 일에 대해 더민감해지도록 해준다 (유 1:20).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의 느낌으로 측정해서는 안 된다.

D. **Blessing and thanking God**: We bless and thank God when we pray or sing in tongues. Paul wrote that he who speaks in a tongue speaks to God (1 Cor. 14:2). Speaking in tongues is a gift that we use to bless, praise, and worship God in a way that differs from giving thanks only with our minds.

하나님께 송축하며 감사하기: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노래할 때, 하나님을 송축(축복)하며 그분께 감사할 수 있다. 바울은 방언하는 자가 하나님께 말한다고 기록했다 (고전 14:2).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선물 (은사)이며, 이는 우리의 지각을 가지고 감사할 때와는 다른 방법이다.

<sup>2</sup>For he who speaks in a tongue does not speak to men but <u>to God</u>... <sup>16</sup>If you <u>bless with the spirit</u>, how will he [others] ...say "Amen" at your <u>giving of thanks</u>...? <sup>17</sup>You indeed <u>give thanks well</u>, but the other is not edified. (1 Cor. 14:2, 16-17)

 $^2$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u>하나님께 하나니</u> ...  $^{16}$  그렇지 아니하면 <u>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u>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u>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u>  $^{17}$  <u>너는</u>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고전 14:2, 16-17)

E. Because we speak to God when we pray in tongues, we should specifically direct our attention to Him and not just speak mindlessly into the air. When I pray in tongues, I often focus my mind on the scene centered on God's throne in heaven (Revelation 4) and speak directly to the Father.

At other times I speak to the Holy Spirit who dwells in my spirit (Rom. 8:9; 2 Cor. 13:14).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그분께 향해야 하며, 허공에 대고 말해서는 안 된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는 종종 내 생각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에 초점을 맞추며 (계 4 장),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말한다. 다른 경우에 나는 내 영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말한다 (롬 8:9; 고후 13:14).

F. Paul referred to praying night and day, or praying without ceasing (1 Thes. 3:10; 5:17). One way he was able to pray so consistently was by praying in tongues while doing other things, such as making tents (Acts 18:3; 20:34) or walking from one city to the next.

바울은 주야로 기도하는 것, 또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살전 3:10; 5:17). 그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방법 중 하나는, 천막을 짓는 등의 일을 하거나 (행 18:3; 20:34) 다른 도시로 걸어 이동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었다.

<sup>&</sup>lt;sup>4</sup>He who speaks in a tongue <u>edifies himself</u>... (1 Cor. 14:4)

<sup>&</sup>lt;sup>4</sup>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 (고전 14:4)

<sup>&</sup>lt;sup>20</sup>...building yourselves up on your most holy faith, praying in the Holy Spirit... (Jude 20)

 $<sup>^{20}</sup>$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u>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u>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 1:20)

#### IV. PRAYING AND SINGING IN THE SPIRIT 영으로 기도하며 노래하기

A. Praying "with the spirit" and praying "in the spirit" includes praying in tongues. We can pray with our understanding (our minds) and with our spirits. Both types of praying are important, but praying with our spirit impacts us in a different way than praying with our minds. God designed us so that our spirit engages with God by speaking or singing in tongues (1 Cor. 14:15; Eph. 5:19; Col. 3:16).

"영으로(with)" 기도하는 것과 "영 안에서(in)"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마음으로 (이해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며, 또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 두 종류의 기도가 모두 중요하지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영향을 끼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언으로 노래하거나 말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다 (고전 14:15; 엡 5:19; 골 3:16).

<sup>15</sup>I will pray with the spirit, and I will also pray with the understanding. I will sing with the spirit, and I will also sing with the understanding. (1 Cor. 14:15)

<sup>15</sup>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u>영으로</u> 기도하고 또 <u>마음으로</u> [한글 KJV: <u>지각으로도</u>, KJV 흠정역: <u>이해하면서</u>] **기도하며 내가 <u>영으로</u> 찬송하고 또 <u>마음으로</u>** [한글 KJV: <u>지각으로도</u>, KJV 흠정역: 이해하면서 ] **찬송하리라 (고전 14:15)** 

B. Both singing with our spirit and with our understanding is important in our spiritual life. Paul taught that if we sing to God from our hearts, we would experience God's grace and the Spirit's presence.

영으로 노래하는 것과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모두 중요한 부분이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노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sup>16</sup>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u>singing with grace in your hearts to the Lord</u>. (Col. 3:16)

<sup>16</sup>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 3:16)

C. One way we are filled with the Spirit is by singing spiritual songs in our heart to the Lord.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 중의 하나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 <sup>18</sup>...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sup>19</sup>speaking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u>singing and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u>... (Eph. 5:18-19)
- <sup>18</sup>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sup>19</sup>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 5:18-19)
- D. By singing the Word and singing with our spirit, our heart becomes more sensitive to the Spirit. I have discovered the power of spontaneously singing Bible passages to God and intermittently singing in tongues, which often results in the Holy Spirit's touching the deep chambers of my heart.

말씀을 노래하고 영으로 노래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께 더욱 민감해지게 된다. 나는 성경 구절들을 하나님께 즉흥적으로 노래하며, 간간이 방언으로 노래하는 것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종종 이를 통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E. Singing the Word impacts our hearts more than just speaking it or hearing others speak it. God designed our heart to be touched deeply by music and singing. As we sing the Word and sing with our spirit, we receive mysteries (impressions from the Holy Spirit) and gain insight from the Word. The Spirit will give us more and more if we will sing the Word and sing with our spirit consistently.

말씀을 노래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말하거나, 다른 이들이 말씀을 말하는 것을 듣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음악과 노래를 통해 깊이 영향을 받도록 디자인해두셨다. 우리가 말씀을 노래하거나 영으로 노래함에 따라, 우리는 비밀들 (성령님으로부터의 감동)을 받게 되거나 말씀으로부터 통찰력을 얻게 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노래하고 영으로 노래할 때 성령님께서는 더욱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F. I encourage people to start by seeking to pray in the Spirit for fifteen minutes a day.

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15분 정도씩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격려를 한다.

## V. BEING CONSIDERATE WHEN PRAYING IN TONGUES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고려하라

A. Paul spoke of times in church services when it is best not to pray in tongues out loud, but rather to pray in tongues *to oneself and to God*. He spoke of it as a practical expression of edifying others and seeking to excel in love (1 Cor. 14:12). In a public gathering such as a church service or prayer meeting, it is important not to distract others when praying in tongues. A public prayer room is like a public living room.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personalities sharing this "living room."

바울은 교회 예배에서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때가 있음을 말했으며, 차라리 방언으로 기도하되 **자신만 들리도록 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했다. 그는 이것이 다른 이들의 덕을 세우며 사랑이 풍성하기를 구하는 실제적인 표현임을 말했다 (고저 14:12). 교회 예배나 기도 모임과 같은 회중 모임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다른 이들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기도실은 다른 이들이 함께 사용하는 거실과도 같다. 이 "거실"은 여러 종류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간이다.

- 12...let it be for the <u>edification of the church</u> that you seek to <u>excel</u>...<sup>28</sup>If there is no interpreter, let him keep silent in church, and <u>let him speak to himself and to God</u>. (1 Cor. 14:12, 28)
- $^{12}$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overline{u}$ 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overline{g}$  그것이  $\overline{g}$  가하라 ...  $^{28}$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고전 14:12,28)
- B. We show love and consideration to others by praying in tongues quietly to avoid distracting others. If the majority of the people in the prayer meeting are singing in the Spirit or praying aloud in the Spirit together, then by all means join in. If you are one of the only people praying out loud in tongues in a meeting, then do it quietly to yourself. It does not quench the Spirit to pray in tongues quietly; in fact, it honors the Lord when we show love and consideration for His people.

우리는 다른 이들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도록 잠잠하게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표현할 수 있다. 만일 기도 모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으로 기도하거나 다 함께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 만일 어떤 모임에서 당신이 혼자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잠잠히 당신만 들리도록 기도하라. 잠잠히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우리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사랑과 배려를 보임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C. We can pray quietly in tongues under our breath anywhere without allowing others to hear us. I do this in leadership meetings, at family meals, or when walking down the hall to my next meeting.

우리는 어디서든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속삭이며 잠잠히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 나는 리더십 미팅이나 가족 식사에서, 또는 다음 미팅 장소로 가는 복도에서 이렇게 기도한다.

#### VI. RECEIVING THE GIFT OF TONGUES 방언의 은사를 받기

A. It is significant that Jesus mentioned praying in tongues in the context of the Great Commission.

I believe we will be more effective in ministry if we include both casting out devils and speaking in tongues.

They go hand in hand in successfully engaging in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지상 대 명령의 맥락 안에서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나는 우리가 축사 사역이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함께 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부분들은 지상 대 명령을 성공적으로 이뤄나가는데 있어서 함께 동반되는 요소들이다.

<sup>15</sup>"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sup>17</sup>These signs will follow those who believe: In My name they will cast out demons; they will <u>speak with new tongues</u>; (Mk. 16:15-17)

 $^{1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막 16:15-17)

B. Being edified in our spiritual lives by praying in tongues is an essential aspect of walking in the Spirit and ministering in His power. I have never known anyone who operated in the prophetic or the healing ministry who did not speak in tongues regularly in their private prayer time.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덕이 더해지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행하고 그분의 권능으로 사역함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나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정기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언이나 치유 사역을 감당해내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다.

C. Praying in tongues is a universal benefit for all believers. It is not a requirement or proof of salvation; rather, it is a benefit available to us through the work of Jesus and the indwelling of the Spirit. It is not reserved for those with a special calling. It does not require any special training, qualification, or preparation. It is a free gift to all as a part of the benefits of our salvation.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다. 이는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아니며,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일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다. 또한 이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한 훈련이나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것도, 준비가 필요하지도 않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유익으로 누릴 수 있는 선물, 은사의 일부분이다.

<sup>5</sup>I wish you <u>all spoke with tongues</u>... <sup>18</sup>I thank my God I speak with tongues <u>more than you all</u>; <sup>39</sup>...desire earnestly to prophesy, and do not forbid to speak with tongues. (1 Cor. 14:5, 18, 39)

<sup>5</sup> 나는 너희가 <u>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u> ... <sup>18</sup> 내가 <u>너희 모든 사람보다</u>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 <sup>39</sup>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고전 14:5, 18, 39)

D. If you have never received your devotional prayer language (the gift of tongues), then you can ask for it now. It is simple—just ask the Lord to release this particular aspect of His grace to you. Some say if the Spirit wants them to speak in tongues, then He will make them. However, the Spirit will not "force" anyone to speak in tongues. Some wait for an overwhelming sense of the Spirit, but often the Spirit touches His people like a gentle breeze. Therefore, as you pray for the release of the gift of tongues, you may simply feel the presence of God lightly or just a gentle urge to speak out.

I encourage you to speak out the words that come to you and see what the Holy Spirit does.

만일 당신이 아직 개인적인 기도의 언어(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 이것을 구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주께서 그분의 이 특정한 부분의 은혜를 당신에게 부어주시기를 구하라.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이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이 방언을 말하도록 만드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도 "강제로" 방언을 말하도록 하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를 기다리지만, 성령님은 종종 그분의 백성을 부드러운 바람과 같이 만지신다. 따라서 당신에게 방언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살짝만 느낄 수도 있으며, 방언을 말하도록 부드럽게 임하실 수도 있다.

나는 당신에게 주시는 말과 단어들을 입을 벌려 말하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지켜보기를 격려한다.